

진화하는 호남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전망과 과제

R&D 역량 높이고 혁신 시스템 시급

정부 주도 탈피 기업 주도형 전환을

지역특화 사업 선택, 집중육성해야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광역체제로 개편된 지 3년이 지났다.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그동안 다져진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스웨덴 시스타 등 선진 클러스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기업이 정신이 원리가 돼 움직이는 클러스터로서의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 주도형에서 기업(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 광역클러스터는 수도권·동남권에 비해 혁신역량과 연구개발(R&D) 수행능력이 부족하다. 또 기업 간 배타적으로 기술 협력이 미약한데다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기업·중견 선도기업의 참여도 저조하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상대적으로 R&D 활동이 미흡하다”며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상호 학습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의 R&D 지원사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외의 경우, 광산클러스터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기업 등 선도기업의 참여가 미약하고, 대불단지와 군산단지는 아직 클러스터로의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단지공단은 올해부터 자율성·개방성을 목표로 변화를 시도했다. ‘테마클러스터’다. 기업 간 가치사

슬, 전후방 연관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코디네이터기업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클러스터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상호 공유해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는 올해 호남권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융·복합 과제와 초광역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광주의 금형기업들과 기계산업이 강한 동남권이 상호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대불의 레저보트 선박 제조사들이 수도권의 디자인·IT 기업들과

협력해 제품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국내 타 권역은 물론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 글로벌 교류 협력을 추진해 기업의 기술력과 신시장 창출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 광통신미니클러스터 부회장인 이재수 골드텔 대표는 “규모의 경제·기술성만으로 경쟁하면 서울·경기지역에 뒤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지역 경쟁력은 상실된다”며 “광주 광산업과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광용미니클러스터 회원들이 지난 4월 열린 정기포럼에서 광산업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클러스터 성공, 대학·연구소·금융기관 참여 절실”

“광주·대불·군산·익산 등 거점단지별 산업여건에 맞는 클러스터 활동으로 호남권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은 11일 “광역클러스터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라며 “올해 공간적 범위를 넘어 타 권역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이 본부장은 또 “초광역 미니클러스터 활동뿐만 아니라 이업종 간 공동과제 발굴,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 글로벌 교류 추진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호남권 광역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하려면 지역경제 주체인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창업벤처가 오늘날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지역의 벤처캐피탈로 대변되는 금융의 지원이 컸다”며 “호남권에도 기술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과 금융 간 상생협력에 더해진다 클러스터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호남권본부는 지난 9월 광주 클러스터 금융분과 포럼을 창립했다. 내년에는 군산·대불 등 다른 거점단지로 금융포럼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 본부장은 “앞으로 사업과 과제 발굴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자율적·자생적 테마클러스터 발굴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경영자 초청 강연회

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민수)는 11일 여수관광호텔에서 전남지역 기업 경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전남 발전을 위한 경영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전남경총 제공〉

금호산업 자본잠식 해소위해 7대1 감자

베트남 플라자사이공 자산 매각도 추진

위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7대 1의 감자(자본감소)를 단행한다. 채권단은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호산업 감자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의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을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키

로 했다.

금호산업이 7대 1 감자를 실시하면 자본금은 현재 8626억원에서 1232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매각과 부채 중등 사업장의 대손충당금 환입 등이 이뤄지면 9월 말 기준 87.3%에 달하는 자본잠식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주식시장에선 회계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상장회사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호산업은 이번 재무구조 개선으로 자본잠식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상태가 심하고 연말에 손실을 낼 가능성이 커 감자와 자산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감자와 자산매각 등을 실시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 자동차 업계 최초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 인증을 받았다.

기아차는 지난 3월 소비자원에 ‘소비자중심경영’ 도입을 신청하고 ‘고객 가치 혁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터 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의 평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기아차는 고객의 목소리를 전

임직원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한 ‘VOC 체험프로그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큐 서비스’, 직원 서비스센터의 전문 상담요원인 ‘어드바이저’ 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장사 26%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 못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올해 들어 재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6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회사는 166개사로 전체의 26.31%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개사가

증가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상장사들의 전반적인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4.90배로 작년 같은 기간의 5.14배보다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배율이 낮아진 것은 기업들의 재무상환능력이 그만큼 나빠진 것을 보여준다. 이들 상장사의 3분기 누적 이자비용은 10조9639억원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64.62 (+7.20)

코스닥지수

481.59 (-8.00)

금리 (국고채 3년)

2.83% (0.00)

원·달러 환율

1076.70원 (-2.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걱정은 이제 그만!



▶ 화재에 위험이 전혀없음
▶ Door를 열었을 시 자동으로 불이 꺼짐
▶ 최첨단 내구적인 설계로 열효율이 우수함

주택 사무실 영업장 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하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명	단독형(스토브식)난로
220V, 60Hz	전	220V, 60Hz
500 x 530 x 870	외 형 치 수	550 x 750 x 1050
약 65kg	체 중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최대연료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 소 연 료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20kg	연료 저장량	최대 30kg
60W	전력소비전력	70W
약83㎡(구 약20~30평형)	사 용 면 적	약149㎡(구 약40~50평형)



▶ 열교환기를 아로 열효율 극대화
▶ Door를 열었을 시 자동으로 불이 꺼짐
▶ 최첨단 내구적인 설계로 열효율이 우수함

제품별 연료 소비량 비교분석표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환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단, 전기온풍기는 0~1000w 사용량을 전우의 금액 사용량이 높아지면 최고 7개에까지 증가 20원 사용시 226w사용시 약 10,163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주)대성에너텍 문의 070-4111-7823
전화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도전 (유사업종 우대)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사제 제120917-종-11712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권영삼원장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찢찢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부어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앞구리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